

만남

2018년 10월
통권 165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구하기 전에 먼저 참된 평화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芬蘭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 박 철 현 미카엘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신부님 칼럼	+ 듣는 계절, 가을-----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내 제자 로 삼아라-----	4
그리스도인의 유머	-----	7
교리	교리산책-----	8
기도 소개	75세 노인이 쓴 산상수훈-----	11
영적 상담	-----	12
나눔	-----	14
미소 짓는 그리스도인	-----	15
공동체 소식	-----	16
지방 공동체 소식	-----	20
활동단체 모임 안내	-----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3
미사안내	-----	24

《교황님의 10월 기도지향》

❖ 선교: 수도자의 사명

봉헌된 남녀 수도자들이 힘을 내어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Schema®

듣는 계절, 가을

가을입니다. 예이츠 시인은 “사랑은 눈으로 들고, 술은 입으로 든다.”는 아름다운 시어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구르몽 시인은 “시몬, 너는 좋으나, 낙엽 밟는 소리가?/밟으면 낙엽은 영혼처럼 운다./낙엽은 날개 소리, 여자의 옷자락 소리./시몬, 너는 좋으나, 낙엽 밟는 소리가?/오라, 우리도 언젠가 낙엽이 되리라.”고 노래했습니다. 어쩌면 가을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계절은 행여 아닐까요?

풀벌레 소리, 단풍이 드는 소리, 이런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가을은 익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소리에 무뎌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주위에 소음이 너무 많기는 합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 자동차의 경적소리, 심지어는 성당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마저 소음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귀를 막고 내면으로 침잠해 들어간다면 훨씬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께서서는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고 종종 말씀하십니다. 청각장애인이 아니라면 누구나 들리는 귀를 가지고 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서는 굳이 “귀 있는”이라고 강조를 하신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때로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태도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못했던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은 힘과 권력을 지닌 구원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토폭 뭉친, 오히려 소외된 이들의 벗인 구원자라는 사실을 여러 번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분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질 않나, 옥좌에 앉으면 오른 쪽과 왼 쪽에 앉혀달라고 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신 것도 이해가 됩니다.

신앙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과연 우리는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까? 낙엽 밟는 소리도 들리고, 풀벌레 소리도 들리고, 성당의 종소리도 들리니까? 낙엽 밟는 소리가 들린다면 나도 한 번 낙엽을 밟아보고, 풀벌레 소리가 들린다면 탐험을 떠나는 마음으로 풀벌레를 찾아보고, 성당의 종소리가 들린다면 종소리에 맞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가을은 듣는 계절입니다. 주위의 모든 것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가는 모든 일이 하느님을 찬미하는 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마태 28,16-20)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63장 “온 세상에 전파하리”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저희들을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의 마음을 사랑으로 이끌어주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마태오 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28, 16 (그때에) 열한 제자는 갈릴래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17 그들은 예수님을 뵈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18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 일상생활에서 모든 권한이 나에게 주어졌던 순간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 ☞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있다고 느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내 주변에 식품점을 경영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들면서 종교를 갖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왠지 천주교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전도사며 외국 선교사까지 가게를 뺏길나 게 드나들며 전교를 하는데, 천주교 신자는 한 사람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입교 방법을 모르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그리움을 안고 주일이면 성당 주변을 서성이며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낭비(?)한 후에야 어찌어찌 줄이 달아 입교하고, 지금은 아주 착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부끄럽고 미안하던 심정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성당 주변을 배회하는 그분에게 성당의 담은 얼마나 높아 보였을 것이며 아무도 아는 척 해주지 않는 신자들이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나는 모태 신앙을 가졌지만 천주교 신자들의 너무 점잖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나 같은 경우야 누가 아는 척을 하든 말든 상관을 하지 않지만 처음 오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색할 것입니다.

어느 본당에서는 6년 동안 ‘나 홀로 신자’로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이사를 가자마자 교적도 옮기고 신부님과 구역장에게 인사를 드렸지만 별로 나를 기억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레지오의 활동인 ‘새 신자 방문’도 없었고, 당연히 입단 권유도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신심단체 활동을 하지 않아 서자처럼 배도는 건 전적 ‘내 탓’임을 알지만, 그래도 주일 미사 후 끼리끼리 형님 아우 하며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슬며시 소외감도 느껴지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양적인 팽창에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본당 사제라 해도 몇 천 명 되는 신자들을 어떻게 일일이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니 누가 기존의 신자고 누가 새로운 얼굴인지 식별하기가 어려운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도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누구에게나 따스한 사랑과 미소로 대한다면 소외감으로 발길을 돌리는 신자는 줄지 않을까요?

정확한 숫자는 기억할 수 없지만 새 영세자들 중 냉담 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새로운 입교자를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 영세자들을 관리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평신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 사랑넷 - 이삭줍기, 김관숙 크리스티나님>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그리고 이번 달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63장 “온 세상에 전파하리”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Tip-----

- ★ 복음 봉독 후에는 “주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 ★ 구성원들이 조용히 기도하는 분위기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 그리스도인의 유머 ❖

어느 신부님께서 열심히 강론을 하고 계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청년 한 사람이 졸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할머니는

눈이 초롱초롱 열심히 강론을 듣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신부님은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화를 버럭 냈습니다.

“아니 할머니! 그 청년 좀 깨워요!”

청년을 야단쳐야 할 것을 애꿎은 할머니를 야단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 하시는 말씀.

“아니, 재우긴 지가 재워 놓고, 왜 나를 보고 깨우라 난리야!”

LOVE



28. 교회와 성당

복음 속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마태 16,18)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

교회(敎會)는 ‘믿는 이들의 공동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계약을 맺은 하느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말이지요. 교회는 “세상이 생길 때부터 이미 상징으로 암시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구약을 통하여 놀랍게 준비되었고, 마지막 시대에 창립되어,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드러났으며, 세말에 영광스럽게 완성될” 존재입니다.(「교회 헌장」 2항)

교회를 희랍어로는 ecclesia(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불러 모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세례를 받고 하느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불러 모으신 사람들이니 우리 모두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하느님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한편, 하느님을 경배하기 위해 지정된 거룩한 건물을 성당(聖堂)이라고 부릅니다. 성당은 신자들이 미사나 전례에 참여하기 위해 모이는 장소이자,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께서 거처하시는 장소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성당은 하느님 경배를 위해 지정된 모든 건물을 말합니다. 미사경본 총지침 288항에 따르면 성당은 ‘거룩한 행위를 거행하고 신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알맞은’ 거룩한 건물로, ‘품위 있고 아름다워야 하며 천상 현실에 대한 표지와 상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의 공동체인 교회는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으로 이해합니다. 성당은 이러한 여정 중에 영적인 음료와 양식을 취하고 하느님 안에 머무름을 통해 활기를 회복하는 쉼터인 셈이지요. 그러면서 또한 천상의 예배를 미리 맛보는 찬미의 마당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당에 와서 하느님의 사랑 안에 충분히 쉬셨습니까? 잠시 가만히 앉아 하느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색색의 유리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처럼 그렇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29. 순교(殉敎)

진리를 위한 헌신의 가장 두드러진 형태가 순교라고 합니다. ‘순교’란 신앙을 증거 하기 위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직면해 신앙의 의미와 진리를 가장 극적으로 증거 하는 동시에 하나뿐인 생명을 바침으로써 육신을 죽이는 자를 초월하는 주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해방 이후 북한 지역의 교회는 순교자가 생겨나고 시설이 잇따라 폐쇄되는 등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6·25 전쟁 무렵에 이르러 박해가 극심해지자 월남을 결심한 성직자와 수도자들은 38선과 가장 가까운 양양성당으로 모여 들었습니다. 이해인 수녀님의 「사랑의 길이 되어 떠나신 분」은 당시 양양본당 신부로 사목하다 원산에서 순교하신 이광재 디모테오(1909년~1950년) 신부님에 대한 시(詩)입니다. 신부님은 성직자, 수도자들의 탈출을 도우면서도 정작 자신은 교회를 지키다 체포되어 순교하셨습니다.

단 한 명의 신자를 위해서도/사제는 희생할 의무가 있다며/스스로 피 흘려 제물이 되신 신부님/

‘교회의 앞날을 위해/나보다 더 훌륭한 성직자 수도자를/하나라도 더 구해야 한다.’며 목숨을 걸고/그들의 월남길을 돕는 길잡이로/온갖 고초를 겪으시다가/마침내 체포되어 죽임을 당하신 분/감옥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고/어둠과 악취뿐인 방공호 속에서/총을 맞고 숨져 가는 최후의 순간까지/자신보다 이웃을 더 많이 생각했던/당신은 진정 또 하나의 예수였습니다.

죽어 가는 동료들의 신음소리 들릴 때마다/‘응, 내가 가지요. 내가 도와 드리지요.’/‘물을 떠다 드릴 텐데 일어날 수가 없군요.’ 하고/극심한 고통 중에도 이웃을 향해/사랑의 헛소리를 되풀이하셨던 신부님.

- 「사랑의 길이 되어 떠나신 분」 중 일부 -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생명을 바쳐 하느님과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의 모범을 따라 하느님과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사랑과 진리의 위대한 증거자입니다.(1요한 3,16 참조) 세상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죽임을 당하신 스승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순교는 교회가 고백하는 최상의 은혜요 가장 큰 사랑의 증명입니다.(「교회 헌장」 42항) 그런 이유로 교회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순교자를 공경하며 모든 성인의 통공 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교의 의미를 기념하고 되새깁니다.

30. 연대(連帶)

“나이 든 노숙자가 길에서 얼어 죽은 것이 기사화되지 않으면서, 주가지수가 조금만 내려가도 기사화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배척입니다. 한쪽에서는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음식이 버려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입니다.”(프란치스코 교황, 「복음의 기쁨」 53항)

교회는 하느님과 인간의 연대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계속 이어져야 하고, 마침내 모든 인간에게 다다라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인간이 하느님과 이루는 일치, 그리고 모든 인간이 서로 이루는 일치의 표지요 도구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모범에 따라 이 시대의 힘없는 이, 희생된 이, 가난한 이들과 연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느님은 이러한 교회를 통하여 모든 문화와 민족들에게 다가가시어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인간이 세상을 ‘인간적으로’ 가꾸려는 곳에 하느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하느님의 구원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과 연대합니다.

어떤 인간도 홀로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항상 타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연대성은 인간의 타고난 사회적 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대성은 사회 원리인 동시에 윤리덕이기도 합니다. 연대성은 사회 질서의 원리로서 ‘배타적 이윤 추구와 권력의 갈망’ 같은 ‘죄의 구조’(「사회적 관심」 36항)를 극복하고 사랑과 연대성의 문명을 일구는 데 기여합니다. 윤리덕으로서의 연대성은 타인, 특히 곤경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한 구체적이고 단호한 개입을 의미합니다. 막연하게 동정심을 보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연대성의 원리는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자신이 속한 사회에 빛을 지고 있다는 인식을 기를 것을 요구합니다.”(「간추린 사회 교리서」 195항)

예수님보다 더 연대적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은 인류 전체와의 연대를 선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류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타인을 위한 이러한 희생은 극진한 사랑과 연대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있어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1코린 12,26)

75세 노인이 쓴 산상수훈(그렉 맥도널드)

내 굼뜬 발걸음과
떨리는 손을 이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듣기 위해
오늘 내 귀가 얼마나 긴장해야 하는가를
이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내 눈이 흐릿하고
무엇을 물어도 대답이 느리다는 걸
이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내가 물컵을 엎질렀을 때
그것을 별일 아닌 걸로 여겨준 자에게 복이 있나니.



기분 좋은 얼굴로 찾아 와
잠시나마 잡담을 나눠준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나더러 그 애긴 오늘만도 두 번이나 하는 것이라고
핀잔주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내가 사랑하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내가 찾아갈 기력이 없을 때
내 집을 방문해 준 의사에게 복이 있나니.

사랑으로 내 황혼녘의 인생을 채워주는
모든 이에게 복이 있나니,
내가 아직 살아 있을 수 있도록
나를 보살펴 주는 내 가족 모두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



질문

저는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이 넘은 신자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자주 고해성사를 봤는데, 때로는 이런 것도 고백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자주 고해소에 들락거리는 것 같아 때론 본당신부님 뵙기가 부끄럽기조차 합니다. 그렇다고 고해성사를 안 보면 왠지 찝찝한 마음이 들고요. 큰 죄를 짓고 살지는 않는데도 생기는 이런 작은 죄책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당신부님은 그런 것까지 고해성사를 보면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걱정하시던데요.

답변 - 홍성남 신부님(가톨릭 영성심리 상담 소장)

사람이 살다 보면 왠지 마음에 찝찝한 것들이 생깁니다. 고해성사를 볼 정도로 큰 것은 아닌데 그냥 넘어가기에는 꺼림칙한 것들, 생선을 먹다가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 듯한 느낌을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일컬어 ‘작은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분들은 살다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라고 합니다만, 그것은 사람 나름이고 현실에서는 심리적 괴로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죄책감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그렇게 무책임하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손바닥에 박힌 가시처럼 방치하면 불편함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꺾어서 큰 상처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죄책감을 다루는 첫 번째 방법은 친구에게 털어놓는 것입니다. 털어놓는다는 것은 심리치료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큰 죄책감이건 작은 것이건 간에 가슴에 끌어안고 쌓아두면 마치 썩어가는 쓰레기처럼 돼 결국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이 되면 청소차가 와서 쓰레기 수거하듯 털어놓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입이 무거운 친구라야 합니다. 그런 친구가 없으면 상담가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렌(Zarren and Eimer)의 ‘자동칠판기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과거 기억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당치 못한 부적절한 기억을 삭제함으로써 현재 삶에 부담이 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눈을 감고 칠판을 상상하고 거기에 자신이 가진 모든 죄책감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도 말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적은 것부터 차례로 지웁니다. 이 작업은 심리적 노폐물들을 처리함으로써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심리적 안정감과 균형을 찾게 해줍니다.

세 번째 방법은 과거 어두운 기억을 몰아내기 위해 현재의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만족감과 행복감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 그것에 몰두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죄책감이 주는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손바닥에 가시가 박힌 아이가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레 가시가 빠져나가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보상행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린 시절 가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춥고 배고픈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은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친 마음 아픈 기억을 가지고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특히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부모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때 잘해드릴 걸 그랬어.’ 하는 후회와 자책감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뜻밖에 많습니다. 이런 때는 그분들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이 좋습니다. 자선행위는 사람들에게 만족감과 행복감을 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잘못을 저지른 분들에게 보상을 해 드린다는 보상감도 있어서 작은 죄책감을 덜기에 최상의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기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미사를 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살아계신 분이나 돌아가신 분들이나 미사를 해 드리면 마음 안의 불편한 죄책감이 덜어지고 하느님께서 그분들을 돌봐 주실 것이라는 심리적 편안함이 생깁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갖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기 위해 작은 죄책감을 갖는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단지 그런 죄책감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따라다닐 때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도 여전히 작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은 인간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지나치게 완전한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는 분 중에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분들은 완전함과 온전함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이 신이 아니라 사람임을,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불완전한 존재임을, 그리고 사람은 실패와 실수를 통해 성숙해가는 존재이지 완결된 존재가 아니라는 자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자의식을 갖지 못하면 작은 죄책감에 시달려 일상생활을 활력 있게 살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분들은 기도할 때도 약한 자의 기도,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는 기도를 해야 죄책감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빛나는 작은 길(살레시안 칼럼에서)

성덕(聖德)으로 올라가는 길, 다시 말해서 성인(聖人)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 생각해봅니다. 우선 드는 생각이 하느님과 교회를 위한 팔목할만한 업적, 세상과 인류를 위한 두드러진 기여, 그를 위해 어느 정도의 경험과 연륜, 세상 사람들의 평가.

그러나 이런 우리의 보편적인 시각, 어느 정도 ‘고리타분한’ 생각을 단칼에 깨트려버린 작지만 위대한 성녀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 학자입니다. 그녀의 짧은 삶이 마치 산속 깊은 곳 외딴 곳에 홀로 피어난 한 송이 작은 꽃 같다고 해서 ‘소화(小花) 데레사’라고도 불립니다.

언뜻 보기에 그녀의 생애는 성인(聖人)이 되기에 많이 부족해보였습니다. 1873년에 태어나셨다가 1897년에 돌아가셨으니 불과 24년간의 짧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성덕을 쌓기에 충분한 시간과 나이가 아니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그 나이의 다른 젊은이들 바라보면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4살의 나이에 덕을 쌓았으면 얼마나 쌓았겠는가? 그것도 봉쇄수녀원 안에서, 그마저도 지병인 결핵으로 골골하면서.’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웬걸, 데레사는 자신의 온 생애를 통해 나이와 연륜이 성덕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제대로 마음만 먹으면, 죽기 살기로 추구한다면 성화의 길이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데레사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슬슬 나이를 먹어가는 제 모습, 성덕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제 모습이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짧은 수도생활의 연륜, 그것도 높고 깊은 담 속에서의 봉헌생활, 거기다 병약한 몸까지. 도무지 대단한 뭔가를 해낼 조건이 아닌 데레사의 짧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교회는 그녀를 그 어떤 성인보다 크게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빛나는 성덕은 온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녀는 교회로부터 선교의 수호자 성인으로 정했습니다.

이토록 특별한 데레사의 비결이 대체 무엇일까요? 대체로 그녀의 삶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극한 겸손, 복음적 단순함, 하느님을 향한 깊

은 신앙, 이 세 가지 요소는 결국 사랑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느님을 마치 사랑하는 연인(戀人) 대하듯 대했습니다. 그녀가 하느님과 주고받은 대화 곧 기도는 마치도 너무 사랑해서 죽고 못하는 연인들끼리 주고받은 연서(戀書) 같았습니다. 그녀는 하느님 앞에 언제나 한 송이 작은 숨은 꽃이길 원했습니다. 그녀 성덕의 길을 빛나는 작은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있어 보이려고, 드러내 보이려고, 과시하고 부풀려 보이려고 기를 쓰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데레사는 어떻게 하면 하느님과 이웃들 앞에 작아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무도 보지 않은 구석으로 숨어보려고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빛나는 작음의 오솔길을 꾸준히 선택했던 데레사를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따뜻한 사랑의 품에 꼭 안아주셨습니다. 숨은 것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서는 그녀 특유의 빛나는 작은 길을 온 세상 사람들 앞에 낱알이 드러내셨습니다.

❖ 미소 짓는 그리스도인 ❖

바오로 형제님은 매일 아침 성서를 펼쳐 그날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구절을 바로 그날의 자기 운명으로 삼는 버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3일 금요일 아침에 성서를 펼쳤더니 다음의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다는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

바오로 형제님은 황급히 성서를 덮었습니다.

다시 한 번 눈을 감고 조심조심 성서를 펼치니 아래의 구절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가서 그것을 실천하여라.”

바오로 형제님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그날의 운명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여겨 세 번째로 성서를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구절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가 하려는 바 그것을 속히 실천하여라.”

이 일이 있은 후 바오로 형제님은 다시는 성서를 미신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매일매일 열심히 정독하는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 10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데 레 사 (St. Teresa)	김 점 님 최 영 숙	18일	루 카 (St. Luke)	현 안 이 태 동 빈
	프란치스코 (St. Francis)	김 진 호 김 재 영	22일	살 로 메 (St. Salome)	정 명 옥
4일	프 란 츠 (St. Franz)	김 기 현	23일	이냐시오 (St. Ignatius)	윤 용 기
	프란치스카 (St. Francisca)	양 현 호 김 인 순			
	프 랑 크	김 기 년	28일	시 몬 (St. Simon)	김 동 수 최 화 영 최 순 남
7일	로 사 리 아	송 화 현			
16일	마르가리타 (St. Margaret)	강 순 행			

❖ 10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리지외의 데 레 사 (St. Teresa)	김영자(B) 황옥순(H) 정옥선(H) 김경자(H) 노금순(O)	15일	아빌라의 데 레 사	임진영(O)
4일	프란치스코 프란치스카	부준우(O) 임종수(O) 조우성(H) 윤주해(B) 안수경(O)	18일	루 카 스 (St. Luke)	이현석(H) Setiahardja Ulung(O)
	프 랑 크	정유진(H)			
7일	로사리아	조현영(B)	30일	루 실 라	권명옥(O)



❖ 10월 성가번호 ❖

10월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7일	46	216	170	271
14일	16	212	180	459
21일	19	512	174	63
28일	찬 양 미 사			

❖ 10월 미사 전례 봉사자 ❖

10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커피 봉사
7일	백정선(토마스아퀴나스) 이영자(헬레나)	이영원(베드로) 김정옥(크리스티나)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최장용(레오)	3구역
14일	최성자(벨라멧타) 김매자(베로니카)	이철우(아우구스티노) 이영희(체칠리아)	주일학교	4구역
21일	이정훈(요나스) 이소라(로셀리나)	윤예진(모니카) 김잔디(아그네스)	청년회	청년회
28일	이경구(안스카) 유곡지(아그네스)	김치수(도미니코) 이영희(클라우디아)	주일학교	요셉 마리아회

❖ 우리들의 정성 ❖

주 일	8월 26일	9월 2일	9월 9일	9월 16일
계(€)	225,34	241,60	255,43	183,60
헌납금	80	70	50	90
구좌입금	8월 20일부터 9월 16일까지 총 300,00 * 헌납금 총 합계 590,00			

❖ 자진헌납금 ❖

2018년 8월 20일 - 2018년 9월 16일 자진 헌납금 납부자 명단

◆ **현금납부 :**

이수웅, 윤석순, 이현묵, 윤예진, 이경규, 진윤희, 강신행,
 김민옥, 우동천, 이정수, 심동근, 이(박)정은, 강순행, 황영선,
 서세원, 손수희, 최장용, 김경렬(점선), 최승진, 김경미,
 김건, 현영애, 신옥희, 김효정, 정마리아 Schuster, 문수진,
 배성우,

◆ **구좌입금 :**

김대현, 김유석, 영희Huber-Pahk, 강일남, 홍종각, 육종인,
 백정선, 남궁춘배, 최순남, 김동수, 홍경영, 김진호, 이영원,
 허두옥, 이정훈, 김치수, 영희 Eggerstedt, 김보경, 이상봉,
 허길조, 방조영자, 허채열, 권지연 Rabe, 이성원, 박준병,
 이석우, 최현봉, 최성자, 옥수 Ranitzsch, 정정숙, 서유미,
 김부남, 김원자, 최화영,

★ **제45회 배구대회 결산을 알려드립니다(8월 25일)**

총수입	3.067,50	총지출	2.618,73	잔액	448,77
-----	----------	-----	----------	----	--------

▶ **배구대회 현금후원 :**

손수희, 방조영자, 강순행, 현옥, 한말조, 최순남, 배성우,
 김형웅, 홍종각, 강일남, 김진호, 허길조, 허선애, 허채열,
 소망교회, 김경미, 여성회, 고문홍, 허두옥, 한인교회, 이정수,
 김잔디, 백정선, 김민옥, 김보경, 동호회(이인화), 박영순,
 김성은, 박종래, 이영희, 이성원, 한인회, 김동수, 김경영,
 장현두, 송문규, 이정은, 평통자문회의, 김형복, 김희정,
 황영선, 독한협회(강신규),

▶ **배구대회 물품후원 :**

정순문, 엄재선, 요셉마리아회, 강일남(강미영),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총무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진헌납금은 한인 천주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10월은 목주기도 성월입니다. 매 주일 14시 30분부터 브레시디움 주관으로 목주기도가 있을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함으로써 은총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2. 청년성서모임 2018년 겨울학기 그룹원을 모집합니다. 과정은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성서모임이고, 모집기간은 10월 둘째 주일까지입니다. 이연우(마리안나), 0176 8676 9696, yeonwoo0424@gmail.com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청년성서모임은 “말씀으로 함께 모인 젊은이들의 교회”를 지향하며 성서를 읽고 묵상과 나눔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3. 10월 4일 목요일 저녁미사 후에는 믿음의 샘 뿌리아 월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 주일미사 후에는 사목월례회가 있습니다.
4. 10월 10일 수요일에는 오전미사 후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만남성당에서 특별한 만남의 시간을 가지며 비디오 관람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기원합니다. 이런 이유로 요셉 마리아회 소공동체 모임은 없습니다.
5. 10월 12일 금요일에는 2구역, 10월 14일 일요일 주일미사 후에는 청년회, 10월 26일 금요일에는 4구역 소공동체 모임이 만남성당에서 있습니다.
6. 10월 15일(월)부터 10월 19일(금)까지 독일·화란 사목자 모임이 프랑크푸르트 한인 천주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평일미사는 없습니다. 이 일정을 꼭 기억해 주시고 사목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7. 10월 21일 일요일은 Welt Missionssonntag입니다. 2차 헌금이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8. 10월 25일 목요일에는 연령회 월례회가 만남성당에서 있습니다.
9. 10월 28일 주일은 Sommerzeit가 해제되는 날입니다. 이 날 주일미사는 찬양미사로 봉헌됩니다.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 Bremen 공동체 소식

1. 소공동체 모임 : Bremen : 매월 3째 주 수요일 14시 Tel. : 0421255162
Visbek : 매월 3째 주 토요일 14시 Tel. : 04445/2431
2. 9월 공동체 미사는 9월 1일 토요일에 봉헌하였습니다.
3. 10월 공동체 미사는 10월 6일 토요일 오후 5시에 ST. Hedwig 성당에서 봉헌할 예정입니다.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공동체 소공동체를 합니다.
2.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6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청년 소공동체를 합니다.
담당자 : 김명수 마태오 0151 2910-3699
3. 9월 공동체 미사는 연중 24주일 미사로 봉헌했습니다.
4. 김보경(세라피나) 자매님이 학업으로 인하여 에센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동체 안에서 늘 함께 봉사하고 활동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자매님 가정의 앞날에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공동체 식구들이 늘 기도 중에 응원하고 기억하겠습니다.
5. 10월 공동체 미사는 10월 20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안토니오 성당에서 봉헌할 예정입니다.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1. 9월 오스나브뤼크 공동체 미사는 9월 8일 토요일에 봉헌하였습니다. 미사에는 쾰른에서 오스나브뤼크로 이사를 오신 이혜령 마리스텔라 자매님이 함께 하였습니다.
2. 루르드의 성녀 베르나데트 수녀님이 안치된 유리관이 9월10일부터 12일 까지 오스나브뤼크 St. Johann 성당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저희 공동체는 9월 12일(수)에 기도모임을 겸하여 St. Johann 성당에서 함께 미사를 드렸습니다.
3. 10월 공동체 미사는 10월 13일(토) 오후 5시에 Pernickelmühle에서 봉헌할 예정입니다.



❖ 활동단체 모임 안내 ❖

사 목 협 의 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한말조(마리안나)
				부회장	배성우(도미니코)
				부회장	권지연(안드레아)
				총무	방조영자(젼마)
				전례부장	문경영(아가다)
주 일 학 교		매주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교감	최영자(파울라)
연 령 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회장	최영숙(데레사)
예 비 자 교 리		매월 첫째 주일미사 전 13시	예수성심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 지 오 마 리 애	믿음의 샘 Cc	매월 첫째 목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이순자(마리아)
	자비의 모후 P.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이순자(마리아)
	평화의 모후 P.	매주 수요일 오전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현영애(헬레나)
	사랑의 모후 P. (청년)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박성아(베로니카)
구 역		1구역	구역장	김매자(베로니카)	
			총 무	신옥희(비아)	
		2구역	구역장	이영희(체칠리아)	
			총 무	허영란(엘리사벳)	
		3구역	구역장	김형웅(야고보)	
			총 무	이경구(안스카)	
		4구역	구역장	방조영자(젼마)	
			총 무	육종인(베로니카)	
청년회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서유미(레지나)	
			부회장	이정훈(요나스)	
요셉, 마리아회		매월 둘째 수요일 평일미사 후	회 장	심은희(안나)	
여성 봉사회			실무 책임	김매자(베로니카)	
				이정옥(크리스티나)	
				허명자(가밀라)	
				심은희(안나)	

10월(목주기도 성월) 중 행사 예정표

일	요일	전례 일	단체 행사	비고
1	월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 학자 기념일		
2	화	수호천사 기념일		
3	수	개천절		
4	목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기념일	믿음의 샘 뿌리아	
5	금			
6	토			브레멘 공동체
7	일	연중 제27주일(군인주일)	사목월례회	
8	월	한로		
9	화	한글날		
10	수		주일학교 체험의 날	
11	목			
12	금		2구역 소공동체	
13	토			오스나브뤼크 공동체
14	일	연중 제28주일	청년 소공동체	
15	월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 학자 기념일	독일·화란 사목자 모임 프랑크푸르트 한인성당 (평일미사가 없습니다)	
16	화			
17	수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 주교 순교자		
18	목	성 루카 복음사가 축일		
19	금			
20	토			하노버 공동체
21	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전교 주일)		2차 헌금
22	월			
23	화	상강		
24	수			
25	목		연령회 월례회	
26	금		4구역 소공동체	
27	토			
28	일	연중 제30주일	찬양미사	
29	월			
30	화			
31	수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박 철 현 미 카 엘
사목회장 한 말 조 마 리 안 나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 보 만 남 ❖

편 집 인 박 철 현 미카엘 gruess8823@gmail.com
본당 신부님 H.P : 0176 4321 9708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미사 10분 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둘째 금요일 17시 00분(2구역 소공동체)

넷째 금요일 16시 00분(4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ss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ss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